

‘선물같은 정원’ 전남 정원 페스티벌 즐기세요

완도 해변공원에서 5월 한달간 33개 해변정원 선별 정원빌리지센터·웰컴가든·웨딩로드 등 볼거리도

‘제4회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생활 속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33개 해변정원을 선보인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선물같은 정원, 대한민국 대표 해변정원 완도 테라스’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정원 페스티벌

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지난 4일 ‘뽀로로 매직싱어롱쇼’ 공연이 2회 열렸다. 또 6일까지 4일간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가 펼쳐졌다. 오는 15-19일엔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과 연계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표정원 1개소, 작가정원인 포토존 가든 2개소, 참여정원인 타이니하우스 30개소와 정원빌리지센터, 웰컴가든, 완도캐슬, 대형 토피어리, 웨딩로드 등을 소재로 다채로운 정원으로 꾸며졌다. 전국에서 참가해 조성한 참여정원 30개 작품에 대해선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 상장과 함께 1천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대상은 윤정희씨의 ‘고희(古稀)’의 봄, 최우수상은 백숙희씨의 ‘행가현(행

복이 있는 집과 들)’과 윤정희씨의 ‘백운봉 운무길따라’, 김성민씨의 ‘완도 가든(wando garden)’, 우수상은 심재경씨의 ‘소통의 공간’, 김현희씨의 ‘완도 키친가든’, 임신자씨의 ‘어부사시사’, 김은선씨의 ‘완도에서 보Go- 쉬Go-’, 홍민서씨의 ‘완도해녀씨의 불턱(솜터)’, 서지원씨의 ‘바닷속 비밀정원’이 차지했다. 시민 참여정원은 오는 31일까지 전시 기간이 끝나면 지난해 최초로 개관해 2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완도 해양치유

센터로 옮겨져 전시를 이어간다. 작가정원은 오래된 녹지공간을 리모델링해 페스티벌 방문객과 지역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새롭게 꾸렸다. 지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만가든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이호우 정원작가와 삼성물산 조경사업부 박철준 소장을 초청해 조성했다. 가든모자와 플라워액자 만들기, 다육이 정원, 정원119 가든상담소, 식물 나눔 등 다양한 정원 체험프로그램과 완도캐슬, 대형토피어리, 웨딩로드는 포토존

이 운영된다. 다육이 정원, 미니토피어리, 수퍼버블쇼, 카니발 매직쇼, 낚시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조명을 조성해 남녀노소 방문객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정원 페스티벌이 4회 째를 맞아 청정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준비했다”며 “모두를 위한 선물 같은 정원과 함께하는 정원페스티벌을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임상준 환경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3일 문인 북구청장 등 6개 기관 관계자 20여명과 광주 북구 무등산 평두메습지를 찾아 람사르협약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무등산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순항’

임상준 환경부 차관 현장 방문...정부 차원 적극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 3일 현지 방문, 평두메습지 실태와 람사르협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 람사르협약 사무국(스위스 글랑)에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인정을 요청, 현재 사무국에서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시는 북구, 무등산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평두메습

지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건의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평두메습지를 찾아 정부 차원의 람사르습지 등록의 당위성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등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평두메습지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북구 화암동 530 등 14필지/2만2천600㎡)는 묵논습지(오래 내버려 두면 쪼개지는 논)로 삼·담비·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식물 약 788종(동물 578종·식물 208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경관·생태학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람사르사무국은 1971년 이란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172개 국가 2천508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국내에는 광주 장록국가습지 등 25곳이 있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시는 장록국가습지와 함께 명실공히 친환경 생태도시와 환경 보전 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강기자

광주시, 오늘부터 287곳 음식점 위생등급 사전평가

우수업소 시설개선 지원

광주시는 6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28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음식점 위생등급 맞춤형 지도(사전 평가)를 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공개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 분야

(5개 항목), 일반 분야(33개 항목), 공통 분야(6개 항목) 등 총 3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등급이 부여된다. 또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받아 실시한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는 ▲지정 기간 내 2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음식점 위생 소독 및 노후 주방시설 개선 사업 지원 시 우대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 항목에 따라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관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과 접수 지원, 위생 용품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지도와 함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현장 지도를 지속 실시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市,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광산구·교통공사 합동...상황실·재난현장 통합 연계

광주시는 지난 3일 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재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 대응 종합 훈련이다. 광주시는 이날 광산구, 광주교통공사 등 20개 기관·단체·시민 등 504명과 장비 50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풍수해 및 도시철도 대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관리, 초동 조치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기관·부서별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평등역과 인근지역 침수, 지반 침하에 의한 탈선 인명사고 상황을 가정해 ▲최초 상황 접수·전파 ▲신속한 초동 대응 ▲시·자치구 상황관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민·관·군·경 협업 대응 체계 점검 ▲문제점·개선 대책 중점 토론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대응·수습·복구 훈련으로 진행했다. 특히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 연계 훈련’으로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훈련은 안전의 최고 보루”라며 “광주시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난 관리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전남보건연구, 봄철 악취 관리 강화

전남도보건의환경연구원은 6일 “봄철 악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악취 관리지역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여수화양농공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악취에 취약한 새벽은 물론 주간·야간 시간대별로 복합 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오길영 악취관리과장은 “정밀한 악취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악취 배출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악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2024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원우 모집

6월 5일 개강 | 특강 5회 · 2박3일 선도 관광지 견학

광주·전남지역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관광아카데미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이론 및 국내 관광 선도지역 견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개설한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십시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민간축제위원회, 행사 기획사, 관광에 관심있는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인원 50명 안팎
- 교육기간 2024년 6월 5일 개강, 6월 12일-14일 현장학습(여수·통영), 6월 20일 종강
- 지원자격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
- 강의방식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여수·통영)
- 수강료 250만원(현장학습비 포함)
- 모집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TV본부 062) 650-2024